

# 2020년 3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4분기 전망

I. '20년 3분기 수출실적 평가

II. '20년 4분기 수출 전망

III. 수출기업 애로사항

## 작성

선임연구원 김윤지 (02-3779-6677)

조사역 김찬원 (02-3779-5709)



※본 보고서의 내용은 담당 연구원의 주관적 견해로,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 <요 약>

### I. '20년 3분기 수출 실적 평가

#### 3분기 수출 전년동기 대비 3.2% 감소, 전기 대비로는 18.1% 증가 전환

- 2020년 3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1,347억 달러) 대비 3.2% 감소, 전분기(1,104억 달러) 대비로는 18.1% 증가한 1,304억 달러
-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던 수출이 주요국 경제 활동 재개로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며 9월에는 월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 반도체 호조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부진했던 자동차 수출이 회복되고, 지역적으로도 중국, 미국, EU 등 주요국 수출이 모두 플러스로 전환

#### 3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 전기 대비 29p 증가

- 3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수출대상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채산성, 수출단가, 수출물량 개선 등으로 전기 대비 상승

#### 수출업황 평가지수 추이

구분	'17				'18				'19				'20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수출업황 평가지수	92	98	96	96	92	97	92	94	88	94	93	94	70	69	<b>98</b>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92	95	95	94	91	96	95	97	91	95	93	92	80	77	<b>97</b>
수출단가 평가지수	99	99	102	95	102	102	102	99	99	100	101	98	100	97	<b>101</b>
생산원가 평가지수	111	108	113	110	115	114	112	108	110	109	108	106	106	103	<b>106</b>
수출물량 평가지수	94	100	97	98	92	100	93	97	86	96	93	95	68	68	<b>100</b>
수출계약 평가지수	93	100	96	98	93	100	94	97	87	95	92	96	68	68	<b>99</b>
자금사정 평가지수	97	96	95	98	96	96	95	97	95	96	95	98	83	63	<b>97</b>

- 산업별로는 플랜트/해외건설 · 문화콘텐츠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수출대상국 경기회복 등 영향으로 수출채산성 · 수출물량 개선

#### 산업별·기업규모별 수출업황 평가지수

구분	전기 전자	기계류	철강· 금속	석유 화학	자동차	섬유류	플랜트· 해건	신재생 에너지	선박	대기업	중소 기업
'20.2Q	79	59	62	67	48	63	87	78	76	76	68
'20.3Q	<b>97</b>	<b>98</b>	<b>98</b>	<b>107</b>	<b>113</b>	<b>98</b>	<b>78</b>	<b>83</b>	<b>81</b>	<b>104</b>	<b>97</b>



## Ⅱ. '20년 4분기 수출 전망

**4분기 수출선행지수 전년동기 대비 2.8p(2.4%) 하락, 전기 대비로는 10.1p(8.6%) 상승**

- '20년 4분기 수출선행지수는 116.5로 수출 경기의 기준이 되는 전년동기 대비로는 2.8p(2.4%) 하락했지만, 전기 대비로는 10.1p(8.6%) 상승
- 수출선행지수가 5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하락했지만, 전기 대비로는 5분기만에 상승 전환 되면서 최근 이어진 수출 둔화세는 진정될 것으로 분석
- 수출선행지수 구성 지표인 수출대상국 경기, 수출용 수입액, 제조업 신규주문 등이 하반기 이후 안정적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어 수출액도 점진적 회복세를 보일 전망

수출 선행지수 추이

구분	2018		2019				2020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수출선행지수	122.0	123.3	123.7	118.1	119.5	119.3	118.0	116.7	106.4	<b>116.5</b>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8.3	6.3	5.6	-1.8	-2.1	-3.2	-4.7	-1.2	-11.0	<b>-2.4</b>
전기대비 증감률(%)	1.5	1.1	0.4	-4.6	1.2	-0.1	-1.1	-1.1	-8.8	<b>9.5</b>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의 전기대비차(p)	4.6	-2.0	-0.7	-7.3	-0.3	-1.1	-1.4	3.5	-9.8	<b>8.6</b>

주 : 수출선행지수는 신규 수치 산출시 과거 선행지수 수치도 함께 변경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인한 경기 위축에서 반등 · 3분기 이후 점진적 회복세 지속**

- 수출대상국 경기 : 코로나19 확산 및 봉쇄 영향으로 중국은 1분기, 선진국은 2분기 경기 저점 찍은 뒤 상승 반전, 3분기에는 점진적 회복세 지속

※ 수출대상국 경기지수(분기, 2010=100) : 147.3('19.4Q)→143.2('20.1Q)→144.0(2Q)→**150.5(3Q)**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는 2분기 38.4까지 하락했으나 6월 이후 반등하면서 8월에는 67.6까지 상승, 3분기 기준으로는 전년동기 대비 30.3% 상승한 63.1 기록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분기) : 48.4('19.3Q)→47.7(4Q)→48.0('20.1Q)→38.4(2Q)→**63.1(3Q)**

- 가격 경쟁력 : 달러 약세 및 위안화 강세 영향으로 원화 가치도 강세를 유지해 3분기 평균 원 달러 환율은 전기 대비 2.6% 하락한 달러당 1,188.5원 기록했으나, 실질실효환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해 가격 경쟁력 하락 위험은 낮은 상황

※ 원/달러환율(분기평균) : 1,193.2('19.3Q)→1,175.8(4Q)→1,193.6('20.1Q)→1,220.8(2Q)→**1,188.5(3Q)**



- **수출물가** : 저유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5.6% 하회하는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고가 반도체, 전기차 등 주력 수출 품목 내 고가 제품 비중이 증가하면서 수출 물가 하락폭은 축소  
 ※ 수출물가 (2015=100, 달러기준) : 95.7('19.3Q)→ 93.9(4Q)→ 91.8('20.1Q)→ 87.5(2Q)→ **90.4(3Q)**  
 ※ 수출물가 증감률(% 전년동기 대비 달러기준) : △10.6('19.3Q)→△9.6(4Q)→△8.2('20.1Q)→△11.0(2Q)→△5.6(3Q)
- **D램** 고정가격은 2021년 상반기까지 점진적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 유가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OPEC+ 감산 폭 축소 등으로 배럴당 40달러 대 초반에서 등락 전망  
 ※ D램 가격(\$, DDR4\_8Gb 고정가격, DRAmExchange) : 294('20.3)→ 331(6)→ 313(7)→ 286(10)→ 281('21.1)→ 276('12)  
 ※ 유가(Dubai, \$/bl, 기간평균) : 64.3('20.1)→ 20.4(4)→ **43.3(7)→ 44.0(8)→ 41.5(9)→ 41.2(10)**
- **주요 산업** : 반도체는 D램 단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지만 상반기 크게 줄었던 가전, 스마트폰 수요가 회복되면서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나갈 전망
- **자동차**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수요 증가 영향으로, **일반기계·철강** 등도 경기 회복 및 전방 산업 호조 영향으로 수출 회복세 전망

### '20년 4분기 수출액, 전년동기 수준 회복 전망

- 수출선행지수가 상승세로 전환하고 관련 경제 지표들도 하반기 이후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어 4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
- 다만, 동절기 영향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강화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지연돼 수출 부진이 이어질 경우,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감소 가능  
 ※ 분기별 수출액(억달러) : ('19.4Q) 1,364 → ('20.1Q) 1,302 → (2Q) 1,104 → (3Q) 1,304
- 2020년 전체 수출은 전년 대비 6~7% 내외 감소한 5,050억 달러 내외에 이를 전망

### Ⅲ. 수출기업 애로사항

**'코로나19 등으로 수출대상국 경기회복 둔화'(52.5%), '원화환율 불안정'(30.1%),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 공세'(28.4%) 순으로 응답**

- 산업 전반적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수출대상국 경기회복 둔화'** 및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 공세'** 응답률이 전기에 이어 높게 유지되는 한편, **'원화환율 불안정'** 응답이 전기 대비 9.5%p 증가
- (산업별) 자동차(34.0%), 플랜트/해외건설(30.4%) 등 업종에서는 **'원화환율 불안정'** 응답률이 각각 20.5%p, 19.3%p 상승한 반면, 섬유류(28.6%), 선박(33.3%) 등에서는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 응답률이 각각 11.2%p, 11.1%p 하락



## I. '20년 3분기 수출 실적 평가

### 1. 수출실적 및 관련지표

#### 3분기 수출 전년동기 대비 3.2% 감소, 전기 대비로는 18.1% 증가 전환

- 2020년 3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1,347억 달러) 대비 3.2% 감소, 전분기(1,104억 달러) 대비로는 18.1% 증가한 1,304억 달러
  -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던 수출이 **주요국 경제 활동 재개로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며 9월에는 월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 8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유지했지만 9월(480억 달러)은 월 수출 400억 달러대를 회복하며 7개월만에 플러스 전환
- ※ 월수출 증감률 (전년동기 대비, %) : ('20.3)△1.7 → (4)△25.6 → (5)△23.8 → (6)△10.9 → (7)△7.1 → (8)△10.1 → (9)7.7
- 반도체 호조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부진했던 자동차 수출이 회복되고, 지역적으로도 중국, 미국, EU 등 주요국 수출이 모두 플러스로 전환

#### 수출실적 관련지표 추이

구분	2018		2019				2020		
	3/4	4/4	1/4	2/4	3/4	4/4	1/4	2/4	3/4
수출액	1,536	1,546	1,327	1,385	1,347	1,364	1,302	1,104	<b>1,304</b>
증가율(%)	1.7	7.7	△8.5	△8.7	△12.3	△11.8	△1.8	△20.3	<b>△3.2</b>
수출물가지수	107.0	103.9	100.1	98.4	95.7	93.9	91.8	87.5	<b>90.4</b>
증가율(%)	4.2	△1.0	△6.3	△8.2	△10.6	△9.6	△8.2	△11.0	<b>△5.6</b>
수입물가지수	112.7	110.1	107.8	108.0	104.7	103.8	99.6	91.0	<b>94.4</b>
증가율(%)	11.7	4.7	△1.5	△4.5	△7.1	△5.7	△7.6	△15.6	<b>△9.9</b>
수출물량지수	114.3	115.6	104.7	110.2	111.0	115.5	110.7	99.1	<b>114.3</b>
증가율(%)	4.1	7.0	△2.5	△2.9	△2.9	△0.1	5.7	△10.1	<b>3.0</b>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은행

주: 수출액은 억 달러,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출입물가지수는 달러화 기준 (2015=100)



## 반도체·자동차 등 경기 민감 분야 점진 회복, 9월 이후 회복세 강화

- **반도체(6.9%)**는 D램 가격은 하락했지만 비대면 경제 지속으로 데이터 센터 및 기업용 서버, 노트북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3분기 막바지에는 중국 화웨이의 미국 제재 이전 긴급 수주로 수출 증가세 유지, 9월 수출액(95억 달러)은 2018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 기록  
 - D램 고정가격은 7월 하락 이후 보합세 유지 중이며 2021년 상반기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  
 ※ D램 가격(\$, DDR4\_8Gb, 고정가격) : 6.0('19.1)→2.84('20.1)→2.94(3)→3.31(5)→**3.13(7)→3.13(8)→3.13(9)**
- **자동차(1.7%)**는 주요 수출국인 미국, EU, CIS 등에서 해외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는 SUV, 전기차의 수출 단가 상승 등으로 코로나19 이후 회복세 진입
- **일반기계(△10.8%)**는 중국내 인프라 사업 확대 및 건설 경기 회복 영향으로 對중국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제조업 경기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9월 이후 증가세 전환
- **석유화학(△16.4%)**은 공급 과잉, 유가 회복 지연 등에도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인한 포장재, 가전 등 합성수지 수요가 개선돼 수출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으나, **석유제품(△43.5%)**은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유 등 석유 제품 수요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 부진 지속  
 ※ 유가(Dubai, \$/bl, 기간평균) : 64.3('20.1)→54.2(2)→33.7(3)→20.4(4)→30.5(5)→**43.3(7)→44.0(8)→41.5(9)**
- **선박(△7.9%)**은 인도 일정에 따라 변동성이 큰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로 선사들의 완공된 선박 인도 연기 요청이 늘어나면서 수출 감소 현상 발생

## 주요 품목별 수출 증감률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구분	'19. 1/4	2/4	3/4	4/4	'20. 1/4	2/4	3/4	7월	8월	9월
반도체	△21.4	△23.6	△30.2	△27.6	0.6	△3.0	<b>6.9</b>	5.6	2.8	11.8
석유화학	△10.3	△15.9	△16.4	△16.2	△13.3	△27.8	<b>△16.4</b>	△21.2	△21.7	△5.3
일반기계	0.5	0.4	△4.3	△3.6	△0.3	△18.7	<b>△10.8</b>	△15.8	△17.2	0.8
무선통신기기	△27.2	△21.0	△16.7	△3.7	△1.3	△22.6	<b>△14.1</b>	4.3	△31.9	△12.5
디스플레이	△11.6	△13.8	△19.8	△21.1	△20.7	△28.5	<b>△17.7</b>	△28.4	△22.8	△1.9
자동차	4.7	9.1	10.3	△1.4	△11.6	△41.5	<b>1.7</b>	△4.3	△12.8	23.2
선박류	△24.6	49.3	39.1	△41.0	9.8	△30.4	<b>△7.9</b>	18.3	△34.8	△3.0

자료: 관세청 및 산업통상자원부



## 미국·중국·EU·베트남 등 주요 수출국 플러스 전환 회복

- **중국 수출(2.6%)**은 중국 내 생산이 회복되고, 중국 정부의 부양 정책 추진 등에 힘입어 반도체, 일반기계, 철강 등이 호조를 보이며 회복세 지속
- **미국 수출(10.2%)**은 제조업 생산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소비가 회복되면서 자동차, 반도체, 가전 등의 수요가 증가해 9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3.2% 증가
- **EU(0.3%)**는 경기 회복은 미국 등보다 지연됐으나 하반기 이후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요가 살아나면서 9월 수출이 6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회복세 진입
- **아세안(△9.7%)**은 코로나19 격리 해제는 선진국 대비 늦춰졌으나, 하반기부터 영업 활동이 재개되면서 반도체, 무선통신, 철강 중심으로 수출 개선

## 주요 지역별 수출 증감률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구분	'19. 1/4	2/4	3/4	4/4	'20. 1/4	2/4	3/4	7월	8월	9월
중국	△17.3	△16.8	△20.2	△9.4	△8.5	△4.5	2.6	2.5	△3.1	8.2
미국	12.9	2.3	△3.2	△5.9	5.5	△17.5	10.2	7.9	△0.6	23.2
일본	△6.0	△6.6	△4.1	△10.4	0.1	△20.7	△16.5	△21.5	△21.4	△6.3
아세안	△2.4	△4.7	0.5	△12.9	3.7	△25.4	△9.7	△14.7	△17.9	4.2
EU	△3.8	△5.9	△0.9	△21.3	△3.2	△19.9	0.3	△11.2	△3.0	15.4
베트남	△3.6	0.0	5.7	△5.6	3.0	△20.1	1.4	△0.4	△8.4	13.6
중동	△26.4	△25.6	△23.9	6.9	△0.6	△22.6	△18.3	△24.8	△20.4	△9.6
CIS	31.3	33.5	20.4	14.1	3.1	△27.2	△20.6	△20.6	△25.6	△16.6

자료: 관세청 및 산업통상자원부

## 수출 물량은 반도체 호조 지속 · 자동차 회복세, 수출 물가는 고가 품목 비중 증가로 하락폭 축소

- **수출물량지수**는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며 **전년동기 대비 3.0% 상승 전환**
- **반도체(11.8%)** 물량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자동차(△3.7%)**도 9월부터 개선되며 감소폭을 축소했으나, **석탄 및 석유제품(△11.2%)**은 여전히 둔화 지속

※ 수출물량지수 증감률(전년 동기 대비, %) : △2.9('19.3Q)→△0.2(4Q)→5.6('20.1Q)→△10.1(2Q)→**3.0(3Q)**

※ 수출물량지수 증감률(전기 대비, %) : 0.7('19.3Q) →4.1(4Q)→△4.3('20.1Q)→△10.4(2Q)→**15.4(3Q)**





- **수출물가**(달러화 기준)는 저유가 영향으로 석유제품 물가가 전년동기 대비 34% 하락하는 등 전반적 하향세를 주도해 전년동기 대비 **5.6% 하락**하며 **8분기 연속 하락세** 유지
- 반도체는 D램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가 제품 수출 비중 증가로 수출 물가( $\Delta 1.5\%$ ) 하락 폭 축소, 자동차( $0.1\% \uparrow$ )도 전기차, SUV 비중이 늘어나면서 수출 물가 상승
- **수입물가**(달러화 기준)도 유가가 전년동기 대비 30% 하락한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9.9% 하락**, 원화기준으로도 **10.3% 하락**

※ 유가(Dubai, \$/bl, 기간평균): 61.3('19.3Q) → 62.1(4Q) → 50.4('20.1Q) → 30.7(2Q) → **42.9(3Q)**

## 2.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 가. 전체 수출 업황

#### 3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 전기 대비 29p 상승

- **3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수출대상국 경기회복 등에 따른 **수출채산성**, **수출단가**, **수출물량 개선** 등으로 전기 대비 **상당폭 상승**
- 2017년 2분기(98) 이후 3년 만에 최고치 기록
-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전기대비 유가 상승 등으로 **생산원가**(원화기준, 106)도 상승했지만 **수출단가**(원화기준, 101) 개선 영향이 더 커, 이를 종합한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전기대비 **20p 상승**

※ 유가(Dubai, \$/bl, 기간평균): 61.3('19.3Q) → 62.1(4Q) → 50.4('20.1Q) → 30.7(2Q) → **42.9(3Q)**

- (**수출물량 평가지수**) 전기 대비 32p 상승한 100 기록
- (**수출계약 평가지수**) 전기 대비 31p 상승한 99 기록
- (**자금사정 평가지수**) 전기 대비 14p 상승한 97 기록

#### 수출업황 평가지수 추이

구분	'17				'18				'19				'20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b>수출업황 평가지수</b>	92	98	96	96	92	97	92	94	88	94	93	94	70	69	<b>98</b>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92	95	95	94	91	96	95	97	91	95	93	92	80	77	<b>97</b>
수출단가 평가지수	99	99	102	95	102	102	102	99	99	100	101	98	100	97	<b>101</b>
생산원가 평가지수	111	108	113	110	115	114	112	108	110	109	108	106	106	103	<b>106</b>
수출물량 평가지수	94	100	97	98	92	100	93	97	86	96	93	95	68	68	<b>100</b>
수출계약 평가지수	93	100	96	98	93	100	94	97	87	95	92	96	68	68	<b>99</b>
자금사정 평가지수	97	96	95	98	96	96	95	97	95	96	95	98	83	83	<b>97</b>

주: <부록> 2.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산출 방식 및 개요 참고





## 나. 규모별·산업별·지역별 수출 업황

**기업규모별 : 수출업황지수는 대기업, 중소기업 전기 대비 각각 28p, 29p 상승**

- 수출채산성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각 15p, 21p 상승하였고, 수출물량은 대기업 24p 상승, 중소기업 34p 상승

**산업별 : 전기전자·자동차·석유화학 등 대부분의 산업군에서 상승**

- 수출채산성 및 수출물량은 수출대상국 경기개선 등 영향으로 문화콘텐츠, 플랜트/해외건설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상승

**지역별 : 미국·유럽 등 모든 지역에서 상승**

- 미국 및 유럽 지역에서는 수출물량이 상당폭 증가하며 수출업황이 개선

기업규모별·산업별·지역별 수출 업황 평가지수

구분		수출업황 지수		수출채산성 지수		수출물량 지수	
		'20. 2/4	'20. 3/4	'20. 2/4	'20. 3/4	'20. 2/4	'20. 3/4
전 체		69	98	77	97	68	100
규모	대 기 업	76	104	89	104	82	106
	중 소 기 업	68	97	75	96	66	100
산업	전 기 전 자	79	97	85	96	76	97
	기 계 류	59	98	71	98	59	102
	철 강 · 비 철 금 속	62	98	72	94	62	99
	석 유 화 학	67	107	75	103	65	108
	자 동 차	48	113	60	109	46	119
	섬 유 류	63	98	68	91	68	107
	플 랜 트 · 해 외 건 설	87	78	98	91	87	80
	신 재 생 에 너 지	78	83	78	94	70	81
	선 박	76	81	80	83	70	87
	문 화 콘 텐 츠	100	86	92	91	104	82
수출 지역	해 운	90	103	93	105	90	110
	미 국 ( 북 미 )	67	108	77	101	67	110
	중 국	80	99	84	101	79	102
	일 본	62	86	73	84	63	84
	유 로 존	55	99	63	98	52	100
	동 남 아	74	92	79	97	72	94
	중 남 미	64	92	68	75	50	83
	중 동	67	90	78	90	67	95



### 3. 수출기업 업황 평가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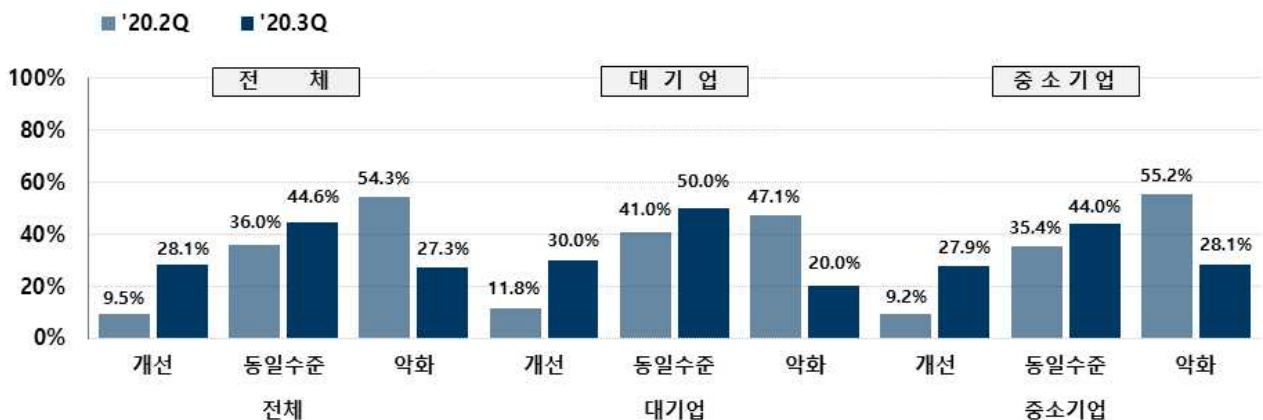
#### 가. 수출 업황 평가 분포 현황 (응답 기업 455개사 대상)

##### 수출 업황, 전기 대비 '개선' 28.1% · '악화' 27.3%로 개선 기업 우세 전환

- 전기 대비 수출 업황 '개선'과 '동일수준' 응답 비율은 각각 18.7%p, 8.6%p 상승한 가운데, '악화' 응답 비율은 27.0%p 하락
- (규모별) 대기업의 '개선' 응답률은 18.2%p 상승, '악화' 응답은 27.1%p 하락하였고, 중소기업 또한 '개선' 및 '악화' 응답 비율이 각각 18.7%p 상승, 27.0%p 하락

#### 3분기 수출 업황 평가 : 기업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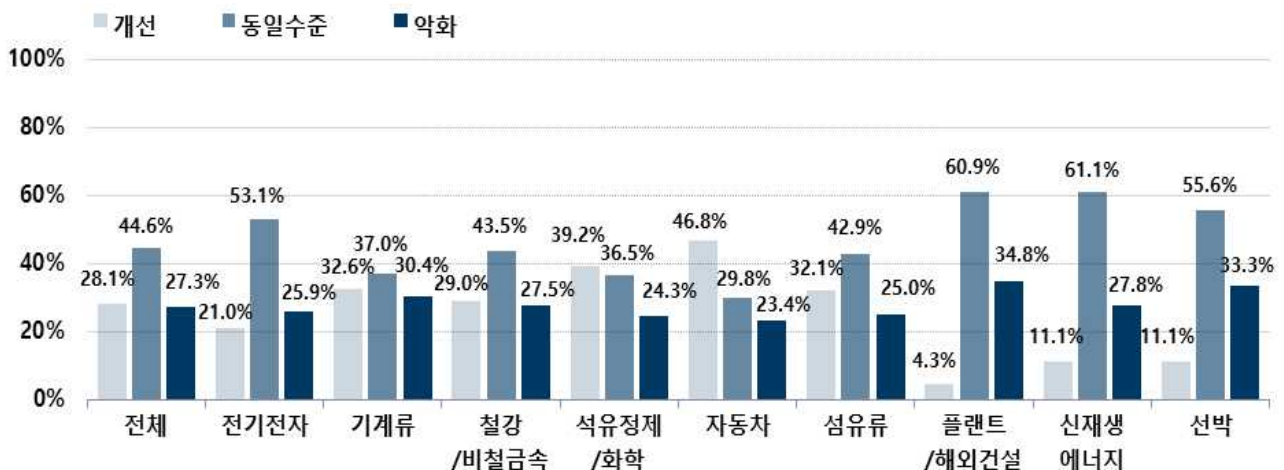
(응답 기업 수 455, 단위 : %)



- (산업별)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기 대비 '개선' 응답률이 상승하였는데, 자동차, 석유정제/화학 등은 '개선' 비중이 각각 38.2%p, 32.2%p 상승하는 한편, 플랜트/해외건설은 3.1%p 하락

#### 3분기 수출 업황 평가 : 산업별

(응답 기업 수 455,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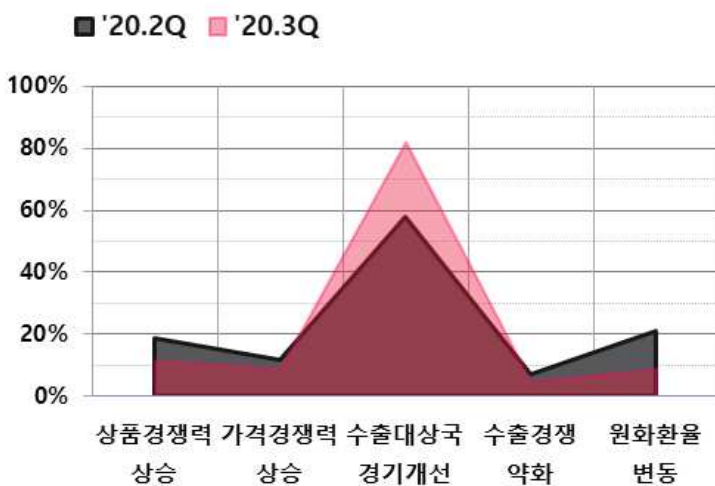
## 나. 수출업황 '개선' 원인 (전체 설문 기업 455개사 중 '개선' 응답 기업 128개사 대상)

### '수출대상국 경기개선'(82.0%), '상품경쟁력 상승'(11.7%) 최다 응답

- '수출대상국 경기개선'(82.0%)과 '상품경쟁력 상승'(11.7%)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전기 대비 '수출대상국 경기개선' 응답률이 23.9%p 상승한 반면, '원화환율 변동' 응답률은 12.3%p 하락

### 3분기 수출업황 '개선' 요인

(‘개선’ 응답 기업 수 128, 복수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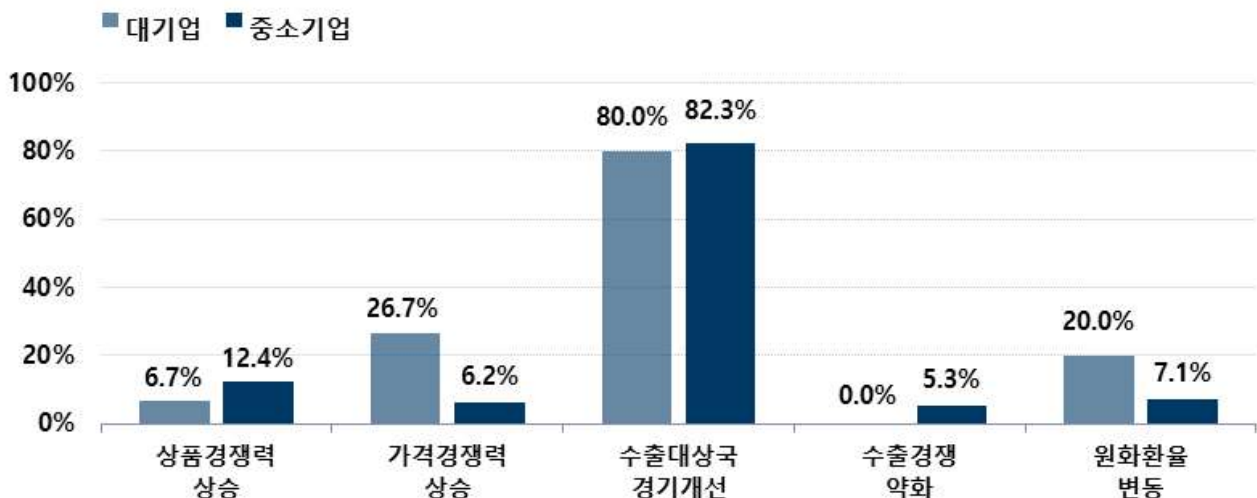


(%)	'20.2Q	'20.3Q
상품경쟁력 상승	18.6%	11.7%
가격경쟁력 상승	11.6%	8.6%
수출대상국 경기개선	58.1%	82.0%
수출경쟁 약화	7.0%	4.7%
원화환율 변동	20.9%	8.6%

- (규모별) 업황 개선 주요 원인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수출대상국 경기개선'을 가장 높게 응답한 가운데, 대기업의 경우 '가격경쟁력 상승'(26.7%)도 주요 요인으로 꼽음

### 3분기 수출업황 '개선' 요인 : 기업 규모별

(‘개선’ 응답 기업 수 128, 복수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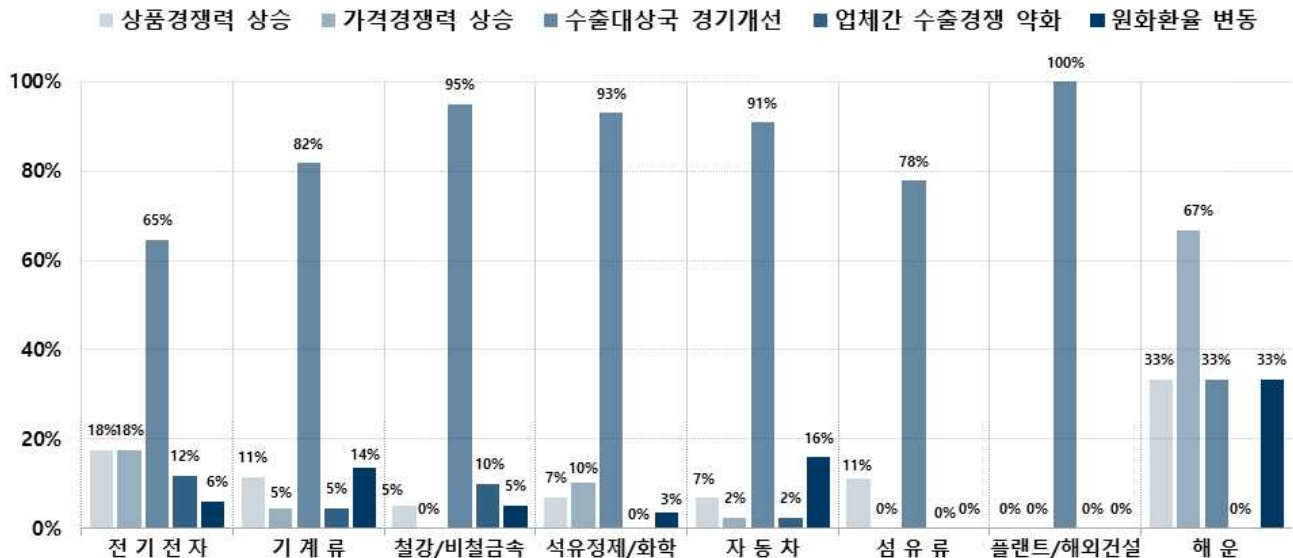




- (산업별) 해운을 제외한 모든 조사대상 업종에서 '수출 대상국 경기개선'을 업황 개선의 주요 요인으로 응답
- 해운은 '가격경쟁력 상승'(66.7%)을 업황 개선의 주요 요인으로 응답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50.0%), 문화콘텐츠(50.0%), 전기전자(17.6%) 등 업종에서도 '가격경쟁력 상승'을 높게 응답
- '원화환율 변동' 응답 비중이 비교적 높은 산업은 해운(33.3%), 자동차(15.9%), 기계류(13.6%) 등
- '업체 간 수출 경쟁 악화'의 경우 전기전자(11.8%), 철강/비철금속(10.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

### 3분기 수출업황 '개선' 요인 : 산업별

('개선' 응답 기업 수 128, 복수응답, 단위 : %)





## 기업규모별 · 산업별 · 지역별 수출업황 '개선' 요인

(단위 : %)

구분		상품경쟁력 상 승	가격경쟁력 상 승	수출대상국 경기개선	수출 경쟁 약 화	원화환율 변 동	신 제 품 개 발	코로나19 여파완화, 수요회복
전 체		11.7%	8.6%	82.0%	4.7%	8.6%	0.8%	1.6%
규 모	대 기 업	6.7%	26.7%	80.0%	0.0%	20.0%	0.0%	0.0%
	중 소 기 업	12.4%	6.2%	82.3%	5.3%	7.1%	0.9%	1.8%
산 업	전 기 전 자	17.6%	17.6%	64.7%	11.8%	5.9%	0.0%	11.8%
	기 계 류	11.4%	4.5%	81.8%	4.5%	13.6%	0.0%	0.0%
	철 강	5.0%	0.0%	95.0%	10.0%	5.0%	0.0%	0.0%
	비 철 금 속	6.9%	10.3%	93.1%	0.0%	3.4%	0.0%	0.0%
	석 유 화 학	6.8%	2.3%	90.9%	2.3%	15.9%	0.0%	0.0%
	자 동 차	11.1%	0.0%	77.8%	0.0%	0.0%	11.1%	0.0%
	섬 유 류	0.0%	0.0%	100.0%	0.0%	0.0%	0.0%	0.0%
	플 랜 트	50.0%	50.0%	50.0%	0.0%	0.0%	0.0%	0.0%
	해 외 건 설	50.0%	50.0%	50.0%	0.0%	0.0%	0.0%	0.0%
	신재생에너지	50.0%	50.0%	50.0%	0.0%	0.0%	0.0%	0.0%
수출 지역	문화콘텐츠	50.0%	50.0%	50.0%	0.0%	0.0%	0.0%	0.0%
	미국(북미)	10.5%	5.3%	87.7%	3.5%	10.5%	0.0%	0.0%
	중 국	16.7%	12.5%	79.2%	12.5%	8.3%	0.0%	0.0%
	일 본	27.3%	0.0%	63.6%	9.1%	0.0%	9.1%	9.1%
	유 로 존	7.1%	7.1%	85.7%	0.0%	7.1%	20.0%	0.0%
	동 남 아	8.3%	16.7%	75.0%	0.0%	8.3%	0.0%	8.3%
	중 남 미	0.0%	0.0%	100.0%	0.0%	0.0%	0.0%	0.0%
	중 동	0.0%	25.0%	75.0%	0.0%	0.0%	0.0%	0.0%

주 : 전체 설문 455개사 중 '개선' 응답 기업 128개사 <복수응답: 1순위+2순위>



## 다. 수출업황 '악화' 원인 (전체 설문 455개사 중 '악화' 응답 기업 124개사 대상)

### '수출대상국 경기둔화'(91.1%), '원화환율 변동'(16.9%) 최다 응답

- '수출대상국 경기 둔화(91.1%)', '원화환율 변동(16.9%)', '가격경쟁력 하락(14.5%)'순 응답
- 전기대비 '수출대상국 경기둔화'는 6.4%p 하락, '원화환율 변동'은 8.8%p 상승
- '수출대상국 경기 둔화'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게 응답

### 3분기 수출업황 '악화' 요인

('악화' 응답 기업 수 124, 복수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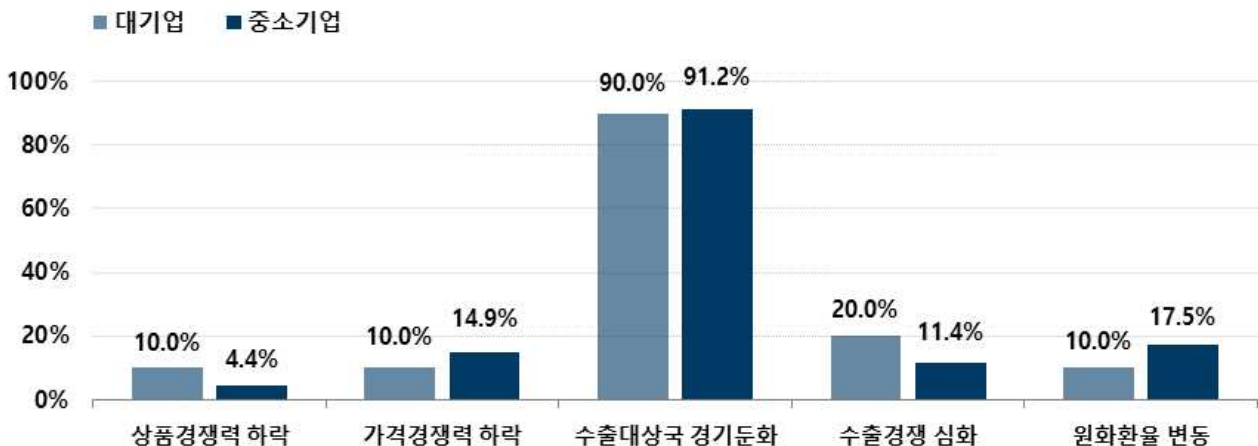


(%)	'20.2Q	'20.3Q
상품경쟁력 하락	2.4%	4.8%
가격경쟁력 하락	9.7%	14.5%
수출대상국 경기둔화	97.6%	91.1%
수출경쟁 심화	10.9%	12.1%
원화환율 변동	8.1%	16.9%

- (규모별)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업황 악화의 주요 원인을 '수출대상국 경기둔화' 선택
-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수출대상국 경기둔화' 응답률이 각각 전기 대비 10.0%p, 6.1%p 하락한 반면, '상품경쟁력 하락' 응답률은 각각 전기 대비 5.8%p, 2.1%p 상승

### 3분기 수출업황 '악화' 요인 : 기업규모별

('악화' 응답 기업 수 124, 복수응답, 단위 : %)





## 기업규모별 · 산업별 · 지역별 수출업황 '악화' 요인

(단위 : %)

구분		상품경쟁력 하락	가격경쟁력 하락	수출대상국 경기둔화	수출경쟁 심화	원화환율 변동	인부 력족
전 체		4.8%	14.5%	91.1%	12.1%	16.9%	0.8%
규 모	대 기 업	10.0%	10.0%	90.0%	20.0%	10.0%	0.0%
	중 소 기 업	4.4%	14.9%	91.2%	11.4%	17.5%	0.9%
산 업	전 기 전 자	0.0%	19.0%	90.5%	9.5%	14.3%	0.0%
	기 계 류	7.3%	9.8%	97.6%	7.3%	14.6%	0.0%
	철강·비철금속	5.3%	15.8%	94.7%	10.5%	15.8%	0.0%
	석 유 화 학	0.0%	22.2%	88.9%	27.8%	16.7%	0.0%
	자 동 차	9.1%	0.0%	95.5%	9.1%	13.6%	0.0%
	섬 유 류	0.0%	14.3%	85.7%	0.0%	14.3%	0.0%
	플랜트·해외건설	12.5%	12.5%	75.0%	12.5%	12.5%	0.0%
	신재생에너지	20.0%	20.0%	60.0%	0.0%	20.0%	20.0%
	선 박	0.0%	0.0%	100.0%	0.0%	11.1%	0.0%
	문 화 콘 텐 츠	25.0%	25.0%	75.0%	25.0%	50.0%	0.0%
	해 운	0.0%	0.0%	100.0%	33.3%	33.3%	0.0%
수출 지역	미 국 ( 북 미 )	0.0%	8.8%	100.0%	14.7%	17.6%	0.0%
	중 국	0.0%	23.8%	95.2%	14.3%	9.5%	0.0%
	일 본	0.0%	15.0%	95.0%	10.0%	10.0%	0.0%
	유 로 존	15.4%	15.4%	76.9%	0.0%	38.5%	7.7%
	동 남 아	14.3%	19.0%	85.7%	14.3%	14.3%	0.0%
	중 남 미	0.0%	0.0%	100.0%	0.0%	0.0%	0.0%
	중 동	16.7%	16.7%	83.3%	16.7%	16.7%	0.0%

주 : 전체 설문 455개사 중 '개선' 응답 기업 124개사 <복수응답: 1순위+2순위>





## Ⅱ. '20년 4분기 수출 전망

### 1. 수출선행지수 추이

**4분기 수출선행지수 전년동기 대비 2.8p(2.4%) 하락, 전기 대비로는 10.1p(8.6%) 상승**

- '20년 4분기 수출선행지수는 116.5로 수출 경기의 기준이 되는 전년동기 대비로는 2.8p(2.4%) 하락했지만, 전기 대비로는 10.1p(8.6%) 상승
- 수출선행지수가 5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하락했지만, 전기 대비로는 5분기만에 상승 전환되면서 최근 이어진 수출 둔화세는 진정될 것으로 분석
- 수출선행지수 구성 지표인 수출대상국 경기, 수출용 수입액, 제조업 신규주문 등이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월별 변동성이 컸지만, 하반기에는 대부분의 지표가 안정적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어 수출액도 점진적 회복세를 보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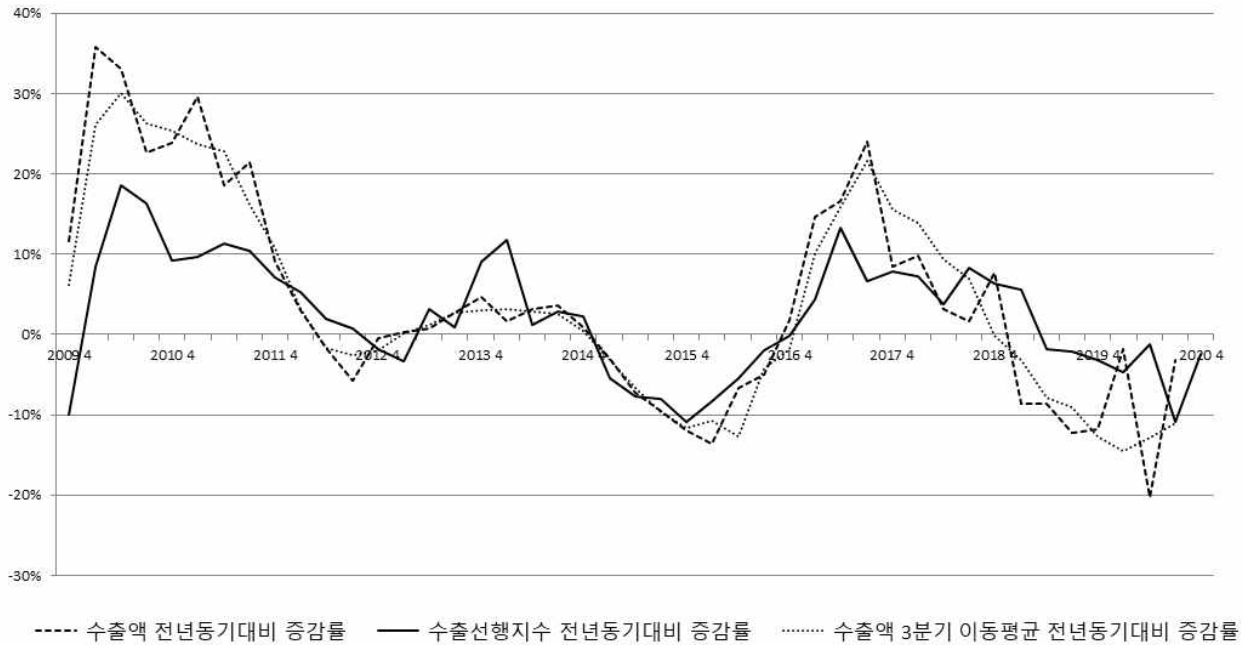
수출 선행지수 추이

구분	2018		2019				2020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수출선행지수	122.0	123.3	123.7	118.1	119.5	119.3	118.0	116.7	106.4	<b>116.5</b>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8.3	6.3	5.6	-1.8	-2.1	-3.2	-4.7	-1.2	-11.0	<b>-2.4</b>
전기대비 증감률(%)	1.5	1.1	0.4	-4.6	1.2	-0.1	-1.1	-1.1	-8.8	<b>9.5</b>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의 전기대비차(p)	4.6	-2.0	-0.7	-7.3	-0.3	-1.1	-1.4	3.5	-9.8	<b>8.6</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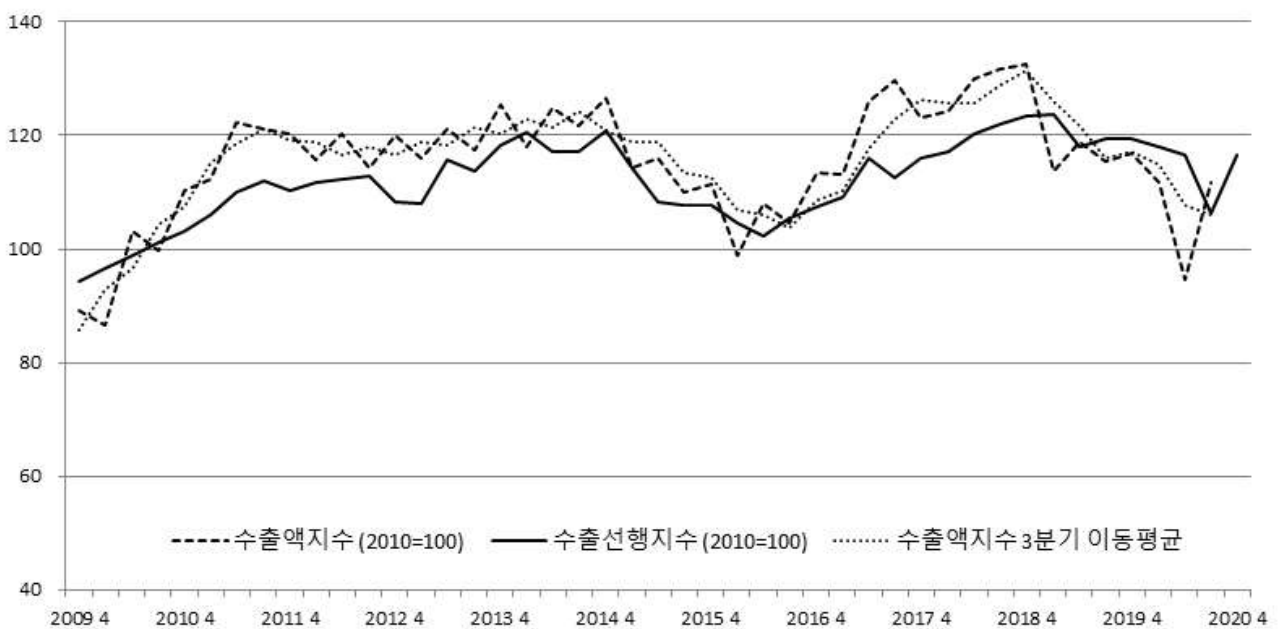
주 : 수출선행지수는 신규 수치 산출시 과거 선행지수 수치도 함께 변경



## 수출선행지수 및 수출실적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추이



## 수출선행지수 및 수출액 지수 추이





##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인한 경기 위축에서 반등 · 3분기 이후 점진적 회복세 지속

- 수출대상국 경기 : 코로나19 확산 및 봉쇄 영향으로 중국은 1분기, 선진국은 2분기 경기 저점 찍은 뒤 상승 반전, 3분기에는 점진적 회복세 지속

※ 수출대상국 경가지수(분기, 2010=100)<sup>1)</sup> : 147.3('19.4Q)→143.2('20.1Q)→144.0(2Q)→**150.5(3Q)**

※ 수출대상국 경가지수(월) : 147.3('20.1)→139.6(2)→140.1(4)→147.4(6)→**149.3(7)→150.7(8)→151.7(9)**

- WTO의 상품무역지수는 2분기 세계 상품교역량 18.5% 하락이 반영돼 3분기 지수는 84.5로 2009년 금융 위기와 유사한 최저 수준 기록, 지수 구성 요소 중 수출 주문 지표가 최근 상승 전환함에 따라 이후 교역액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Goods Trade Barometer(WTO, 2010=100) : 95.7('19.3Q)→96.6(4Q)→95.5('20.1Q)→87.6(2Q)→**84.5(3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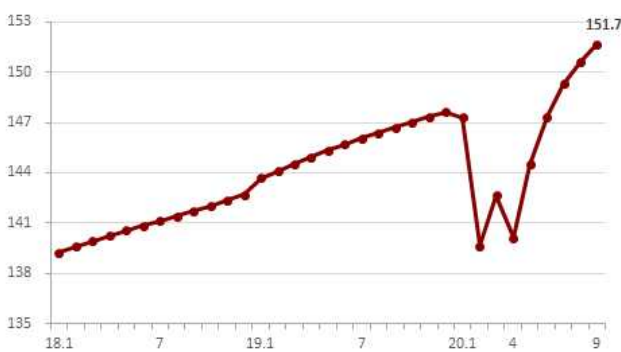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는 2분기 38.4까지 하락했으나 6월 이후 반등하면서 8월에는 67.6까지 상승, 3분기 기준으로는 전년동기 대비 30.3% 상승한 63.1 기록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분기) : 48.4('19.3Q)→47.7(4Q)→48.0('20.1Q)→38.4(2Q)→**63.1(3Q)**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월) : 52.0('20.1)→27.1(4)→31.8(5)→56.4(6)→**61.5(7)→67.6(8)→6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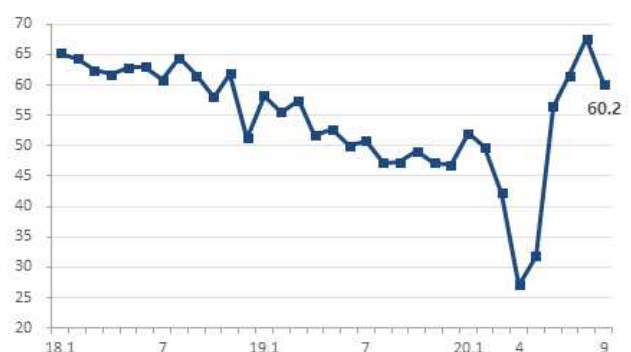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 :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에서 매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신규주문, 생산, 고용, 재고 등 설문을 실시해 발표하는 지수로 우리나라 수출액과 3~6개월의 선행성 나타냄.

수출 대상국 경가지수



자료 : OECD 선행지수 활용 자체 산출 (성장률 반영)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



자료 :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

- 수출용 수입액 지수는 저유가 및 수출 둔화 영향으로 2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44.3% 하락했으나, 3분기에는 전기 대비 24.7% 상승 전환, 전년동기 대비로는 여전히 27.7% 낮은 수준

※ 수출용 수입액지수(분기, 2010=100): 99.4('19.3Q)→96.1(4Q)→96.4('20.1Q)→57.6(2Q)→**71.8(3Q)**

※ 수출용 수입액지수(월): 106.5('20.1)→87.9(3)→50.9(5)→54.7(6)→**70.8(7)→66.8(8)→77.8(9)**

1) GDP 성장률을 반영한 경기 지수 기준



- **가격 경쟁력** : 달러 약세 및 위안화 강세 영향으로 원화 가치도 강세를 유지해 3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은 전기 대비 2.6% 하락한 달러당 1,188.5원** 기록했으나, 실질실효환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해 가격 경쟁력 하락 위험은 낮은 상황
- 중국 경제 성장세로 위안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위안화 대체 수단으로 인정받는 원화도 당분간 강세를 유지할 전망
  - ※ 원/달러환율(분기평균) : 1,193.2('19.3Q)→1,175.8(4Q)→1,193.6('20.1Q)→1,220.8(2Q)→**1,188.5(3Q)**
  - ※ 원/달러환율(월 평균) : 1,164.3('20.1)→ 1,220.1(3)→ 1,228.7(5)→ **1,198.9(7)→ 1,186.9(8)→ 1,178.8(9)**
- **실질실효환율\*** : 원달러 환율이 강세로 전환됐지만 실질실효환율은 여전히 지난 5년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수출 경쟁력이 하락할 정도의 원화 고평가는 아니라는 분석

\* **실질실효환율** : 교역상대국의 환율을 교역량으로 가중평균한 뒤 물가변동을 감안해 산출하는 지표로, 2010년=100을 기준으로 상승하면 통화가치 고평가, 하락하면 통화가치 저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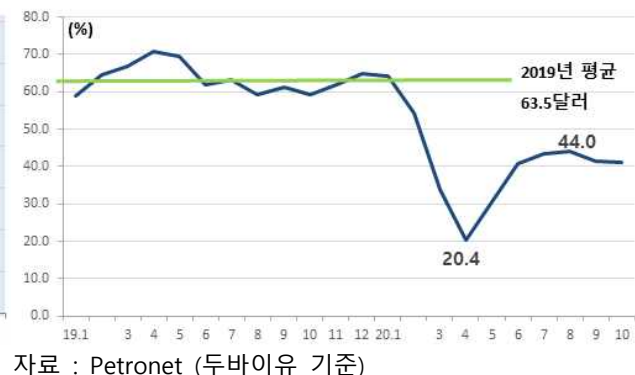
※ 원화 실질실효환율(BIS) : 106.3('19.3Q) → 107.4(4Q) → 106.0('20.1Q) → 105.2(2Q) → **105.4(3Q)**

- **수출물가** : 저유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5.6% 하회하는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고가 반도체, 전기차 등 주력 수출 품목 내 고가 제품 비중이 증가하면서 수출 물가 하락폭은 축소
  - ※ 수출물가 (2015=100, 달러기준) : 95.7('19.3Q)→ 93.9(4Q)→ 91.8('20.1Q)→ 87.5(2Q)→ **90.4(3Q)**
  - ※ 수출물가 증감률(% 전년동기 대비, 달러기준) : △10.6('19.3Q)→△9.6(4Q)→△8.2('20.1Q)→△11.0(2Q)→△**5.6(3Q)**
- **D램** 고정가격은 7월 하락 이후 보합세를 유지했으나, 2021년 상반기까지 점진적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
  - ※ D램 가격(\$, DDR4\_8Gb 고정가격, DRAMExchange) : 2.94('20.3)→ 3.31(6)→ 3.13(7)→ 2.86(10)→ 2.81<sup>P</sup>(11)→ 2.76<sup>P</sup>(12)
- **유가**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리비아 생산재개로 인한 공급 부담 등 **하락 요인**과 OPEC+ 감산이행 강화 기대 등 **상승 요인**이 혼재해 배럴당 **40달러 대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할** 전망
  - ※ 유가(Dubai, \$/bl, 기간평균) : 64.3('20.1)→ 20.4(4)→ **43.3(7)→ 44.0(8)→ 41.5(9)→ 41.2(10)**

**D램 가격 전망**



**유가 추이**





- **주요 산업** : 반도체는 D램 단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지만 상반기 크게 줄었던 가전, 스마트폰 수요가 회복되면서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나갈 전망
- **자동차**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수요 증가 영향으로, **일반기계·철강** 등도 경기 회복 및 전방 산업 호조 영향으로 수출 회복세 전망
- **선박**은 올해 인도가 지연됐던 대형 LNG선들의 연말 내 인도 계획으로 수출액 증가

#### ‘20년 4분기 수출액, 전년동기 수준 회복 전망

- 수출선행지수가 상승세로 전환하고 관련 경제 지표들도 하반기 이후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어 4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
- 다만, 동절기 영향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강화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지연돼 수출 부진이 이어질 경우,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감소 가능

※ 분기별 수출액 (억달러) : ('19.4Q) 1,364 → ('20.1Q) 1,302 → (2Q) 1,104 → (3Q) 1,304

- 2020년 전체 수출은 전년 대비 6~7% 내외 감소한 5,050 달러 내외에 이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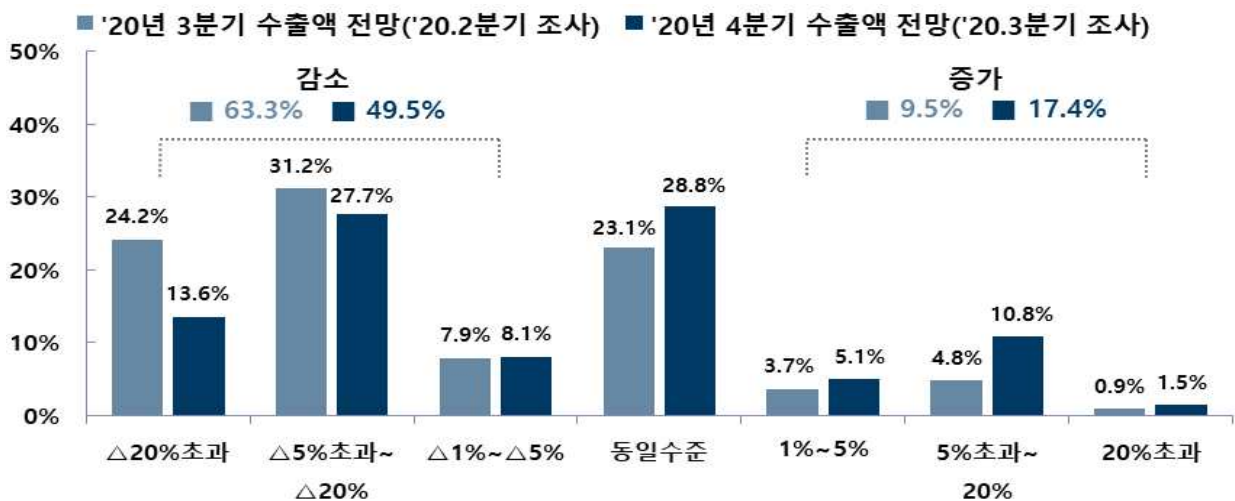
## 2. 수출기업 4분기 수출액 전망

### 전년동기 대비 수출액 '감소' 전망 49.5%, '증가' 전망 17.4%

- 산업 전반적으로 수출액 감소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전분기 전망 대비 '수출액 감소' 전망 응답은 13.8%p 하락하고 '수출액 증가' 전망 응답은 7.9%p 상승하는 등, 지난 분기 대비 감소·증가 전망 간 격차가 좁혀짐

#### '20년 4분기 수출액 전망 (전년동기 대비)

(응답 기업 수 455,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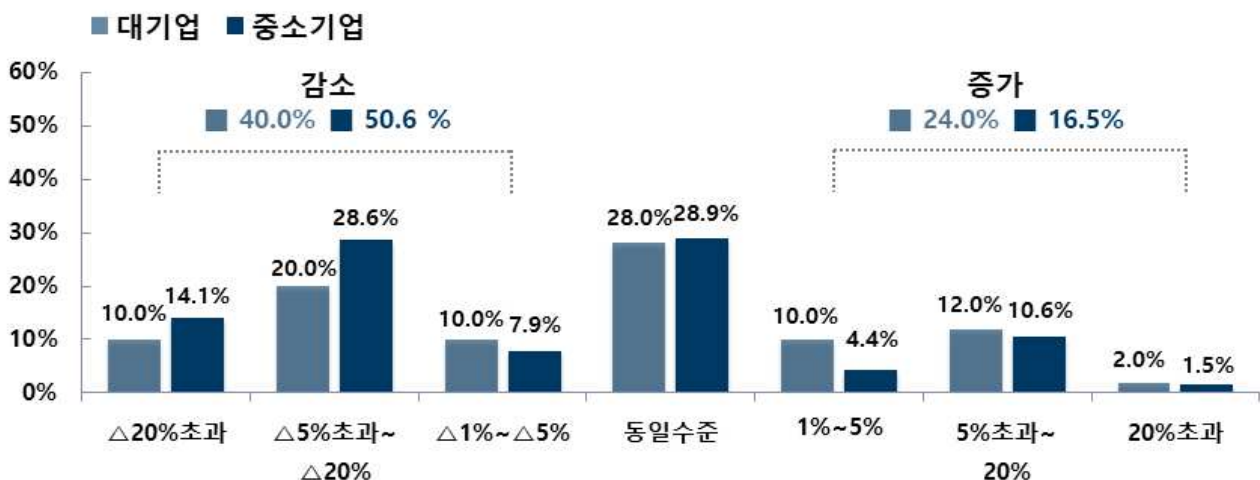


\*모름/응답거절 : 4.2%('20.2분기 조사), 4.4%('20.3분기 조사)

- (규모별)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감소' 응답이 각각 40.0%, 50.6%로 각각 전기 대비 18.8%p, 13.2%p 하락한 반면, '증가' 응답은 각각 24.0%, 16.5%로 각각 18.1%p, 6.6%p 상승

#### '20년 4분기 수출액 전망 : 기업규모별 (전년동기 대비)

(응답 기업 수 455,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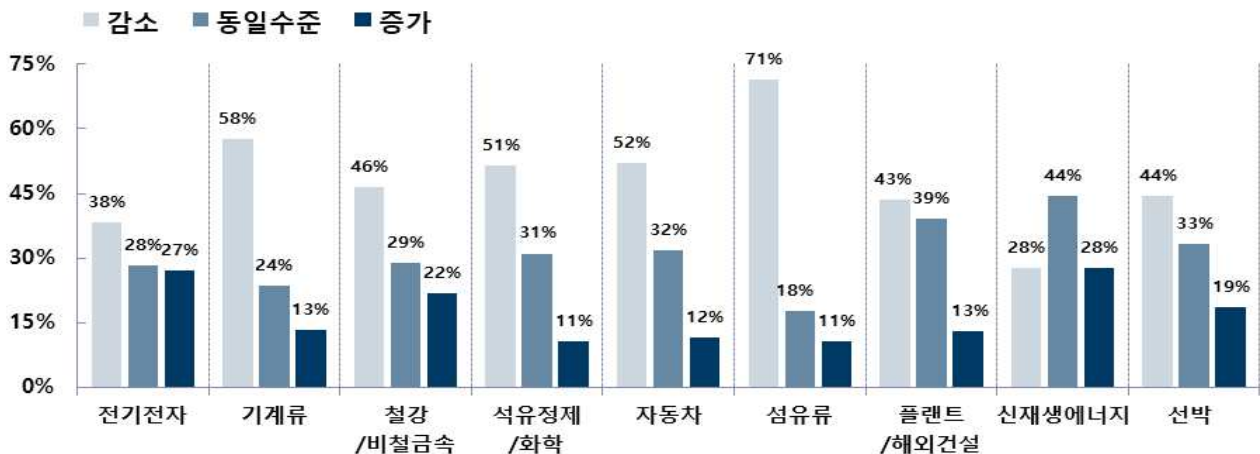




- (산업별) 문화콘텐츠는 전년동기 대비 4분기 수출액 '증가' 전망이 '감소' 전망보다 우세한 반면, 이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는 '감소' 전망이 우세
- 문화콘텐츠(36.4%) 외에 신재생에너지(27.8%), 전기전자(27.2%) 등은 '증가' 전망 응답 비율이 타 산업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석유류(46.4%)는 4분기 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에 육박

### '20년 4분기 수출액 전망 : 산업별 (전년동기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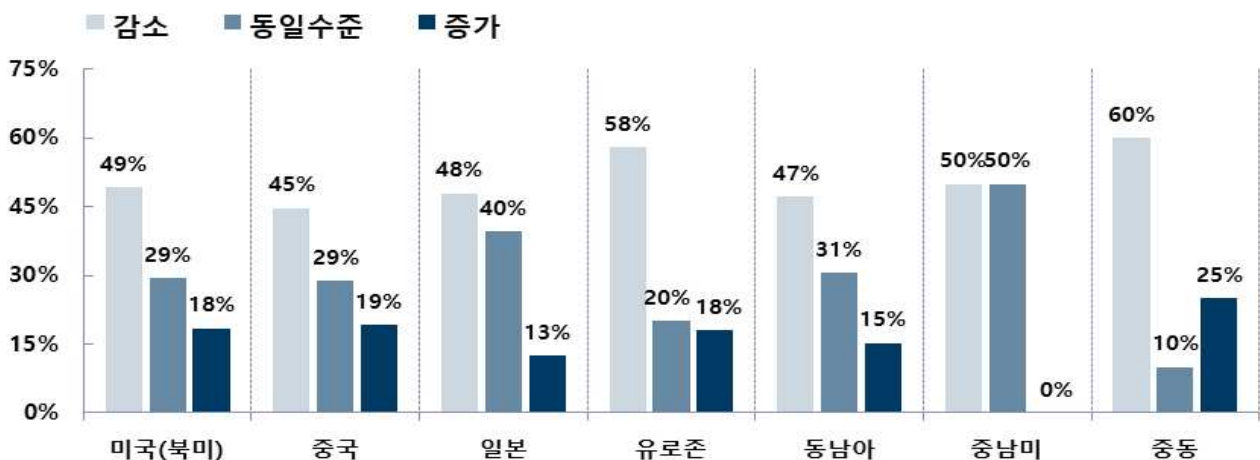
(응답 기업 수 455, 단위 : %)



- (지역별) 미국, 중국 등 모든 조사대상 지역에서 전년동기 대비 수출액 '감소' 전망 우세
- 일본, 중국은 '감소' 응답률이 전분기 조사 대비 각각 23.8%p, 17.7%p 하락하였으며, 유로존은 '증가' 응답률이 18.0%p 상승

### '20년 4분기 수출액 전망 : 지역별 (전년동기 대비)

(응답 기업 수 455, 단위 : %)







‘20년 4분기 수출액 전망 증감률(전년동기 대비)

(단위 : %)

구분		△20 % 초과	△5% 초과 ~ △20%	△1% ~ △5%	동일 수준	1% ~ 5%	5% 초과 ~ 20%	20% 초과
전 체		13.6%	27.7%	8.1%	28.8%	5.1%	10.8%	1.5%
규 모	대 기 업	10.0%	20.0%	10.0%	28.0%	10.0%	12.0%	2.0%
	중 소 기 업	14.1%	28.6%	7.9%	28.9%	4.4%	10.6%	1.5%
산 업	전 기 전 자	11.1%	19.8%	7.4%	28.4%	9.9%	13.6%	3.7%
	기 계 류	15.6%	34.8%	7.4%	23.7%	2.2%	11.1%	0.0%
	철 강·비 철 금 속	7.2%	27.5%	11.6%	29.0%	7.2%	13.0%	1.4%
	석 유 화 학	9.5%	31.1%	10.8%	31.1%	4.1%	5.4%	1.4%
	자 동 차	9.6%	34.0%	8.5%	31.9%	3.2%	8.5%	0.0%
	섬 유 류	46.4%	21.4%	3.6%	17.9%	3.6%	3.6%	3.6%
	플랜트·해외건설	17.4%	21.7%	4.3%	39.1%	4.3%	8.7%	0.0%
	신 재 생 에 너 지	11.1%	11.1%	5.6%	44.4%	0.0%	22.2%	5.6%
	선 박	14.8%	18.5%	11.1%	33.3%	0.0%	7.4%	11.1%
	문 화 콘 텐 츠	9.1%	9.1%	9.1%	36.4%	0.0%	36.4%	0.0%
	해 운	0.0%	25.0%	5.0%	45.0%	5.0%	20.0%	0.0%
수출 지역	미 국 ( 북 미 )	12.3%	28.1%	8.9%	29.5%	5.5%	12.3%	0.7%
	중 국	5.3%	29.8%	9.6%	28.7%	5.3%	11.7%	2.1%
	일 본	12.5%	27.1%	8.3%	39.6%	4.2%	8.3%	0.0%
	유 로 존	14.0%	32.0%	12.0%	20.0%	2.0%	8.0%	8.0%
	동 남 아	16.7%	27.8%	2.8%	30.6%	6.9%	8.3%	0.0%
	중 남 미	33.3%	0.0%	16.7%	50.0%	0.0%	0.0%	0.0%
	중 동	35.0%	25.0%	0.0%	10.0%	5.0%	20.0%	0.0%

주 : 총 455개사 <모름/거절(20개사)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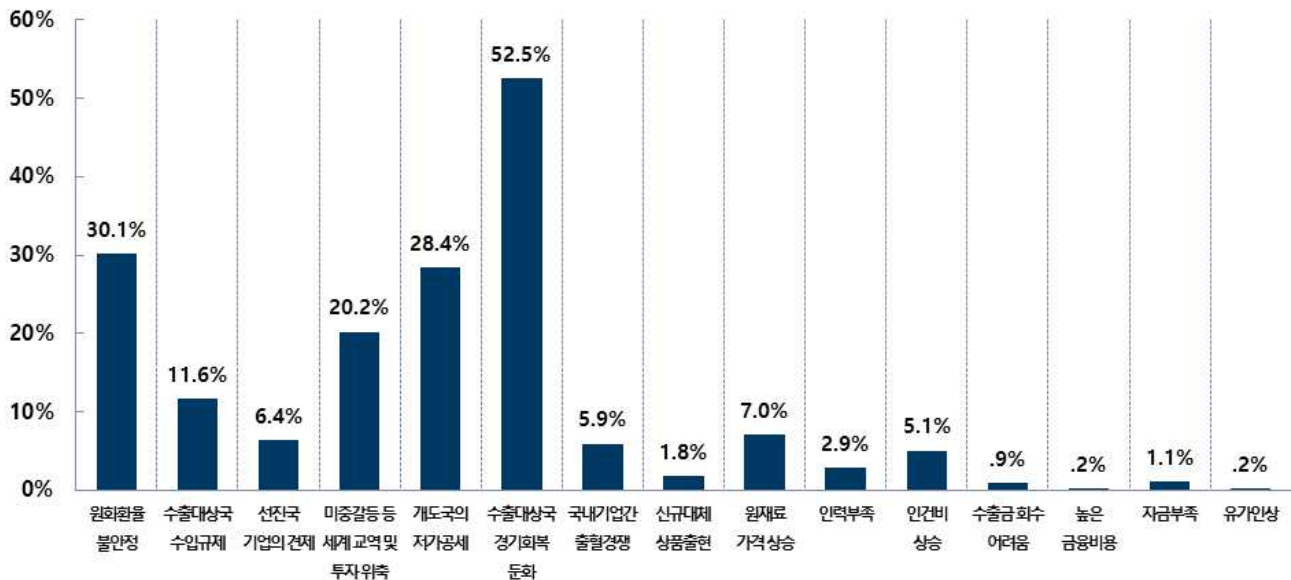
### Ⅲ. 수출기업 애로사항

‘코로나19 등으로 수출대상국 경기회복 둔화’(52.5%), ‘원화환율 불안정’(30.1%),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 공세’(28.4%) 순으로 응답

- 해운을 제외한 모든 조사대상 업종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수출대상국 경기회복 둔화’(52.5%) 응답이 가장 높음
- 모든 조사대상 지역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수출대상국 경기회복 둔화’를 가장 높게 응답
- 전기대비 ‘코로나19 등으로 수출대상국 경기회복 둔화’ 응답이 6.6%p 하락한 반면, ‘원화환율 불안정’(30.1%) 응답이 9.5%p 상승

#### ‘20년 3분기 수출기업 주요 애로사항

(응답 기업 수 455, 단위 : %, 1순위+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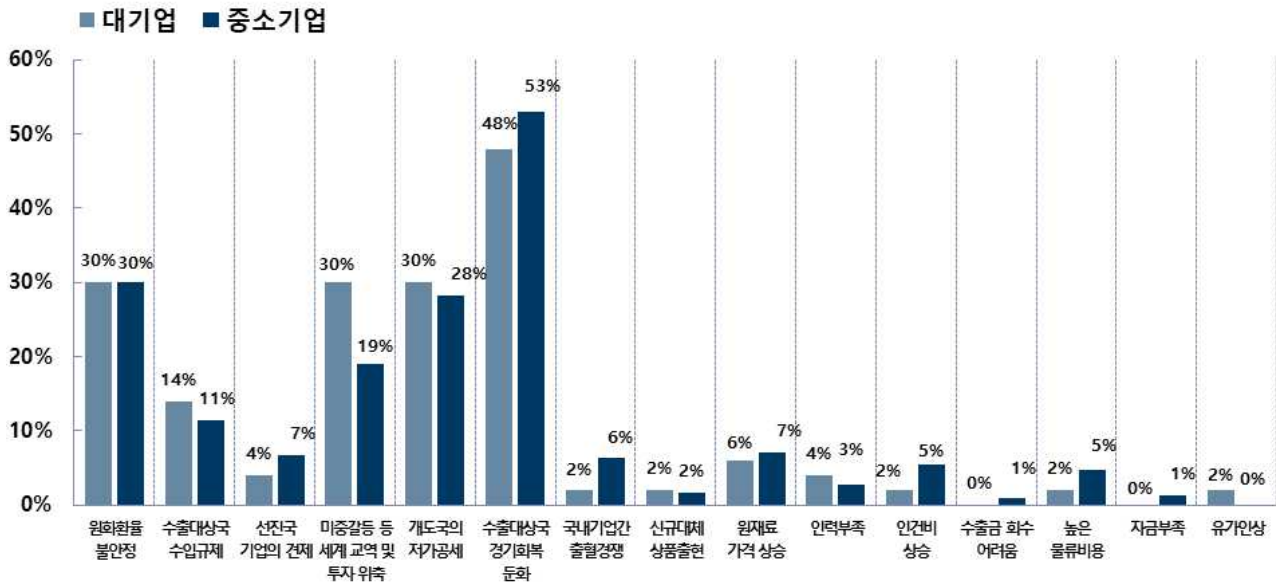


- (산업별) 자동차(34.0%), 플랜트/해외건설(30.4%) 등 업종에서는 ‘원화환율 불안정’ 응답률이 각각 20.5%p, 19.3%p 상승한 반면, 석유류(17.9%), 선박(33.3%) 등에서는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 응답률이 각각 11.2%p, 11.1%p 하락
- (규모별) 대기업(48.0%), 중소기업(53.1%) 모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비·투자 부진’을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응답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비·투자 부진’ 응답률은 대기업(22.6%p ↓)에서 크게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4.6%p ↓)에서는 소폭 하락에 그침
  - ‘원화환율 불안정’ 응답률은 대기업(18.2%p ↑), 중소기업(8.3%p ↑) 모두 상승한 반면, ‘미중 무역갈등 지속으로 인한 교역위축’ 응답률은 대기업(1.4%p ↓), 중소기업(2.3%p ↓) 모두 소폭 하락



## '20년 3분기 수출기업 주요 애로사항 : 기업규모별

(응답 기업 수 455, 단위 : %, 1순위+2순위)





## 기업규모별 · 산업별 수출 애로요인

(단위 : %)

구분		원화환율 불안정	수출 대상국의 수입규제 (고관세)	선진국 기업의 견제	무역갈등 여파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	코로나19 여파로 수출대상국 경기 둔화	국내기업 출혈경쟁	원재료 가격 상승
전 체		30.1%	11.6%	6.4%	20.2%	28.4%	52.5%	5.9%	7.0%
규 모	대 기 업	30.0%	14.0%	4.0%	30.0%	30.0%	48.0%	2.0%	6.0%
	중 소 기 업	30.1%	11.4%	6.7%	19.0%	28.1%	53.1%	6.4%	7.2%
산 업	전 기 전 자	32.1%	13.6%	4.9%	18.5%	29.6%	49.4%	1.2%	4.9%
	기 계 류	28.9%	6.7%	8.9%	17.8%	31.9%	57.8%	6.7%	8.1%
	철 강 · 비 철 금 속	24.6%	15.9%	8.7%	20.3%	27.5%	52.2%	7.2%	11.6%
	석 유 화 학	32.4%	14.9%	1.4%	29.7%	29.7%	50.0%	5.4%	9.5%
	자 동 차	34.0%	8.5%	3.2%	18.1%	25.5%	61.7%	2.1%	7.4%
	섬 유 류	28.6%	10.7%	0.0%	21.4%	17.9%	60.7%	7.1%	3.6%
	플 랜 트 · 해 외 건 설	30.4%	4.3%	4.3%	13.0%	34.8%	56.5%	0.0%	0.0%
	신 재 생 에 너 지	44.4%	22.2%	5.6%	5.6%	33.3%	44.4%	11.1%	0.0%
	선 박	33.3%	11.1%	7.4%	22.2%	33.3%	40.7%	11.1%	7.4%
	문화콘텐츠	27.3%	18.2%	18.2%	18.2%	9.1%	54.5%	18.2%	0.0%
	해 운	35.0%	15.0%	20.0%	25.0%	30.0%	25.0%	15.0%	5.0%
수출 지역	미국(북미)	28.8%	10.3%	4.8%	22.6%	26.0%	58.9%	6.8%	5.5%
	중 국	31.9%	9.6%	9.6%	29.8%	27.7%	41.5%	4.3%	11.7%
	일 본	31.3%	12.5%	10.4%	16.7%	33.3%	45.8%	8.3%	8.3%
	유 로 존	26.0%	16.0%	4.0%	22.0%	30.0%	54.0%	4.0%	4.0%
	동 남 아	29.2%	12.5%	5.6%	11.1%	27.8%	52.8%	9.7%	4.2%
	중 남 미	33.3%	16.7%	0.0%	0.0%	16.7%	66.7%	0.0%	16.7%
	중 동	25.0%	15.0%	10.0%	10.0%	35.0%	60.0%	0.0%	15.0%

주 : 총 455개사 <복수응답: 1순위+2순위>



## <부록> 수출기업 업황 설문조사 및 지수 개요

### 1. 설문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기업이 수출현장에서 느끼는 종합적인 수출여건을 기업별, 업종별로 조사하여, 기업경영 계획과 정부의 무역 지원 시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 기간 및 방법

- 조사 대상 기간
  - 업황 평가 : 조사 직전 분기
  - 실적 전망 : 조사 해당 분기
- 조사 실시 기간 : 2020년 10월 5일~8일
- 모집단 및 표본
  - 모집단 : 12개 주요산업 중 수출액 5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 표본크기 : 대중소기업 455개 업체 (대기업 50개, 중소기업 405개)
- 조사 방법 : 전화 및 이메일, 팩스

### 2.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산출 방식 및 개요

####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산출 방식

- 기업들이 해당 분기 조사 항목에 대해 매우 개선(증가·상승), 개선(증가·상승), 비슷, 악화(감소·하락), 매우 악화(감소·하락) 등 5단계 중 자신의 평가를 선택하도록 설문조사 수행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황 개선 기업 수가 악화 기업 수보다 많으면 100보다 높게, 그 반대의 경우에는 100보다 낮도록 지수화

- 지수 산출 방식 :

$$\frac{(\text{매우개선} \times 1.0 + \text{약간개선} \times 0.5 + 0 \times \text{동일} - \text{약간악화} \times 0.5 - \text{매우악화} \times 1.0)}{\text{전체 응답자수}} \times 100 + 100$$



##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조사 내용

구	분	내	용
수출업황	평가지수	수출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수출기업의 채산성에 대한 평가	
수출단가	평가지수	수출단가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평가	
생산원가	평가지수	생산원가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평가	
수출물량	평가지수	수출물량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평가	
수출계약	평가지수	수출계약금액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평가	
자금사정	평가지수	자금사정의 개선 또는 악화에 대한 평가	

## 3. 수출 선행지수 추정 모형 및 구성요소

### 수출 선행지수 추정 모형

- 수출선행지수는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 산업별 수주 현황, 환율 등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종합해 수출 증감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든 지수
- 2010년=100 기준으로 산출되며, 2018년 1분기부터는 ISM제조업 신규주문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등을 변수로 추가하는 등 추정 모형 소폭 개정
- \* 미국공급자관리협회(ISM: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에서 매월 400여개 제조업체 대상으로 신규주문, 생산, 재고, 고용 등의 설문을 실시해 발표하는 지수

### 지수 모형 구성 내용

구 분	변 수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ECD, 중국, 인도, 브라질 등</li> <li>• 외화획득용 일반수입액</li> <li>• ISM 제조업 신규주문 지수</li> </ul>
수출가격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질실효환율</li> </ul>
산업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도체 :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li> <li>• 선박 : 해외수요 선박수주액</li> <li>• 기계 : 해외수요 기계수주액</li> </ul>